



#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동역으로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Child Development Project in Mongolia

## 2017년 7월 ~ 12월 소식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올 한 해에 가장 저 자신을 채찍질 했던 말은 “조급하지 말자~!!”입니다. 빨리 결론을 내고 싶고, 과정을 기다리는 지루함을 견디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건 이거야~!” 하고 서둘러 단정 지음이 실수가 되어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발 빠른 대처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드러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나름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아직은 뭔가 결과를 보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빨리 뭔가를 보고자 하는 나의 조급함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했었지요.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는 매사에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하면서 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지내온 2017년 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급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신 여러 동역자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 ● 주요사역

#### \* 문맹 아동을 위한 교실운영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라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벌써 3,4학년이 되었는데도 글을 몰라 수업이 불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그 숫자가 10명 남짓이어서 비용이 좀 들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학을 가거나 학업을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성장한 CDP결연아동

CDP에 결연되어 도움을 받았던 아동이 졸업을 해서 어엿한 의대생이 되어서 캠프에 도움으로 와서 의료봉사를 하고 이뿐 아니라 아동들과 같이 놀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마웠고, 자기도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 하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헌신할 줄 아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했습니다.

#### \* 부모체육대회

4개 지역의 CDP 결연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을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겨울의 문턱이라고 말하기엔 추운 날씨임에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가 다 될 때까지 1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말이 체육대회지 부모장기자랑? 부모올림픽? 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명랑운동회, 배구시합, 체스대회, 탁구시합, 댄스대회에 노래자랑까지 했으니깐요.

그래도 그렇지 12시간... 엄청나죠? 행여 너무 긴 시간으로 인해 부모들의 불평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반응은 전혀 탄판이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했고, 먼 지역은 밤 12시 넘어서 귀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기대한다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지역의 부모들마다 대회를 기다리며 연습하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서로 연습시간을 맞추느라고 밤 10시, 11시에 체육관에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준비했다고 하는 믿기지 않지만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큰 에너지를 얻게 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직원들이 오랜시간 행사 운영으로 탈진 할만도 할텐데... 자기들도 엄청 좋아라하며 무슨 무용담을 말하듯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했습니다.

**\* CDP결연아동의 가정을 위한 가족장터 행사**

CDP 결연아동의 가족을 위해 가족나들이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처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후원물품을 나눠주고 남은 것과 다양한 종류, 그리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그냥 나눠주면 그 물건이 누구에게가는 이전처럼 필요없이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터를 열어서 필요에 따라 가져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용기술이 있는 엄마는 이발봉사를 하고, 또 다른 엄마는 네일아트를 해 주고, CDP를 졸업한 의대생은 건강검진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 몽골 CDP결연아동이 HOPE CUP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아대책에서 2년마다 10개국 아동을 초청하여 실시하며 2018년 2회 대회를 하게 되는 희망컵 축구대회에 몽골국이 선정되어 9월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계약을 하고 연습일정 등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참가하게 된 아이들도 주 2회 모여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위 설명 순서대로)**



문맹 아동을 대상을 교육하는 모습



방과후수업



CDP를 졸업해서 의료봉사 뿐 아니라 굿은일을 돕습니다.

부모체육대회사진입니다.



200명 가까이 모여서, 국민의례, 그리고 체조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배구시합, 노래자랑, 탁구, 그리고 체스대회(몽골에서는 체스대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손잡고 댄스~ 여기는 막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으로 춤을 정식으로 배웁니다.

지원 프로그램



새학년에 필요한 학용품을 지원하고, 겨울 용품과 선탄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노래, 춤, 곡에서커스 등으로 예수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 김준태, 천선희 선교사 올림.